

# 장흥군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총사업비 370억원



부지 사전매입·차별화된 지역 특성 프로그램 앞세워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6000㎡

장흥군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성공했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을 장흥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에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를 실시했다.

모두 13개 지자체가 참가한 이번 공모에서 장흥군은 부지 사전매입, 차별화된 지역 특성 프로그램을 앞세워 유치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공모를 주관한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370억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이 투입된다.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2024~2028년까지 5년 동안 설계·시설결정·공사를 진행하고 2028년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8개 체험존과 26개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장흥군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연간 20만 명 이상이 체험관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입인구 증가와 400여명의 일자리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성공했다"며, "소방, 재난, 산업 안전과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체험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군 농식품 창업지원 '매출증대, 신규고용' 일석이조

관내 33개소 참여, 농수축산물 상품화 온라인 경쟁력 확보 지원

해남군이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은 해남군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상품화하여 온라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개발·생산을 지원은 물론 민간 대

중투자(크라우드 펀딩)와 연계하여 제품 홍보·판매, 영상 등의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 진출까지 지원한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11개소씩 지금까지 33개소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함께 연간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기존 무화과 생산에서 한단계 나아가 대중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금, 무화과청 상품화에 성공해 본격적인 가공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육가공 업체인 ㄹ업체의 경우 출시 후 홍보부족으로 방치돼 있던 캠핑용 먹거리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재홍보하면서 판매율이 분게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각종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된 상품 실시간 방송판매는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어 농가의 자신감 회복에도 큰 계기가 되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2024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변경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변경...미질 좋고 도복 강해

강진군이 지난 24일 개최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3차 심의회'결과, 매입품종을 기존 '새청무·강대찬'에서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변경 결정했다.

지난 6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세 번에 걸친 심의회에서는 군청, 군의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 관내 농협 및 RPC, 농업인 단체가 참석해, 최근 대두된 강대찬 쌀의 미질 문제에 대한 논의와 품종 선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군은 당초 '새청무·강대찬'을 매입 품종으로 선정했지만,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반품 요구가 발생하는 등 강대찬 쌀에 대한 품질 논란이 불거졌고, 농업인 단체 및 농협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및 협의를 거쳐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청무'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전남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 동안 개발한 품종으로,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하며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앙 범위가 넓고

출수기가 분산되어 있어 재배 안정성이 타 품종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결과, 매입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군의 벼 재배 주력 품종인 '새청무'는 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해왔다.

군은 새청무를 매년 3,000ha를 계약재배하고 농협 자금과 군비를 투입해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군의 '프리미엄 호평'이 '2023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18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등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품종이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변경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차기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을 위해 강진군에 차별화된 새로운 종자 및 품종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완도군이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주민 참여도, 우수 마을 선정 건수,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실적, 수법 사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 으뜸마을 75개소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완도읍 주도마을, 군외면 영흥마을, 신지면 금곡마을, 청산면 진산마을·청계마을 등 5개 마을이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천중실 행정지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 초청 홍보 여행 성료 아름다운 진도군 관광 홍보로 중국 관광객 유입 확대 기대



진도군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현지 여행사 대표 등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 18명을 초청해 홍보 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 여행은 중국 여행객 단체관광 재개 등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도군과

전라남도 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했다.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운림산방과 세방낙조 방문을 시작으로 솔비치 진도 돌레길을 산책하는 등 군의 주요 관광지를 알차게 소개했다.

이번 홍보 여행에 참여한 한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는 "진도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진도군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초청 홍보 여행을 시작으로 중국 관광객의 변화하는 관광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